

[붙임기] * 모든 동아리 학생이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학교 보관용)

<h1 style="text-align: center;">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h1> <h2 style="text-align: center;">동아리활동 결과 보고서</h2>				
신청자 (회장)	이름	구혜원	학 번	10301
			핸드폰	010-9296-7876
지원분야	<input type="checkbox"/> 인문분야 <input type="checkbox"/> 자연분야 <input type="checkbox"/> 예체능분야 <input type="checkbox"/> 인성,문화분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수기간	2022 8/22 월요일	장소	카페	
활동 내용 및 결과	<p>'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파트별로 나누어 읽고 각 파트의 간략한 내용과 느낀점을 공유한다.</p> <p>세포, 유전자 파트 : 생명은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 시작한다.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인데 세포의 분열은 모든 생물의 성장과 발달의 기반이며 분열을 반복함으로써 배아가 발생하고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하여 생체로 완성된다.</p> <p>세포의 생리적 기능과 분열은 모두 DNA에 저장된 유전자에 의해 정교하게 통제된다. 또한 유전자에는 단백질합성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는 이용하여 유전성질을 결정한다.</p> <p>자연선택 : 자연선택을 안기 위해서는 먼저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연선택설이란 첫 번째로 과잉생산과 변이가 있어야 많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이가 생겨나게 되고, 그 변이가 모이고 모여 다양한 개체 변이들이 생기난다고 한다. 그 개체들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즉, 환경에 적응하기 유하는 변이만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는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그렇게 그 개체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p> <p>정보론의 생명 : 생물이 복잡하고 조직된 데로써 결과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이 사는 바깥 세계와 자기 내명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 받아가야 한다. 생명에 많은 것이 밝혀지고 의학 기술도 발달하면서 당파자는 세상에 대한 내용이 다.</p>			
소감 및 느낀 점	<p>세포, 유전자 파트 : 학원에서 세포 따로 유전자 따로 배워서 세포와 유전자의 관련성을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세포와 유전자의 깊은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점은 사람 몸 속에는 약 2만 2천개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1억개 정도 있는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p> <p>자연선택 : 자연선택설을 읽기 전까진 많이 생장하는 기관은 발달하여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지지만 사용되지 않은 기관은 퇴화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연선택설은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자연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생물이 진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라마르크의 용불성설과 비슷하다고 깨달았고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진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유익하였다.</p> <p>정보론의 생명 : 책은 어려웠지만 평소 궁금해했던 의학의 역사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어서 재밌었고 생명이란 본수를 학원에서 배우는 것 배려는 관계 다른 거리가 없었는데 허클베리핀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서 유익한 활동이었다.</p>			